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O THE MOON AND BACK

가제 : 살아남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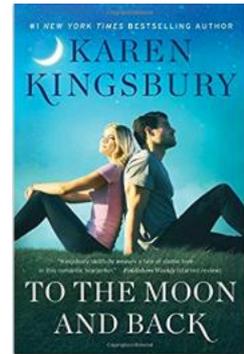
저자 : Karen Kingsbury

출판사: Howard Books

발행일: 2018년 5월 29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가족/종교



- * TV 시리즈 제작 예정,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5위
- * “신의 사랑이 가장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능숙한 솜씨로 엮은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달달한 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생존과 믿음, 타버린 재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 「북리스트」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라고 하면 모두가 9/11 테러를 떠올리지만, 그 전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는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였다. 연방정부에 불만을 품은 테러리스트가 그곳 정부청사 앞에 폭탄 트럭을 폭파시킨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168명이 목숨을 잃고 700여 명이 다쳤다. 간결하면서도 쉽게 읽히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설들로 큰 사랑을 받아온 작가는 이 끔찍한 사고를 소재로 생존과 회복,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완성했다. 작가의 기존의 소설에 소설에 여러 번 등장한 애슐리 벅스터가, 남편 랜든과 자식들, 여동생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픔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조카 에이미와 함께 오클라호마시티를 찾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오클라호마시티 비극의 피해자인 청년을 만난다.

애슐리와 가족들이 오클라호마시티를 찾은 건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봄 휴가 기간이었다. 식구들 중 누군가 가보고 싶어하는 곳들을 찬찬히 함께 둘러보는 평화로운 가족 여행의 목적지에는 오클라호마시티의 명물이 된 ‘살아남은 나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난 정부청사 주변은 주변 수십 블록의 건물 300여 채가 무너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청사 근처 주차장에서 있던 느릅나무 한 그루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온갖 파편이 박히고 불타버린 이 나무를 베어버리려다 일종의 사고 조사를 위한 증거물로 남겨두었는데, 사고 후 1년이 지나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살아남은 나무’로 이름 지어진 이 느릅나무는 테러는 물론 다른 비극적인 사건들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살아갈 희망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 나무를 보러 가기로 한 것은 열두 살 때 교통사고로 엄마아빠와 형제 모두를 하루 아침에 잃고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 애슐리의 조카 에이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였다. 자신을 친딸처럼 돌봐주던 애슐리 이모의 집에서, 에이미는 엄마가 수년 전 그 신기한 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앨범에 그 사진을 고이 붙여두고 짝막한 기도문을 써둔 엄마의 글씨를 보면서, 에이미는 꼭 한 번 그 나무를 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에이미의 소원이었던 이 방문에서 뜻밖의 만남이 발생한다. 브래디라는 어느 젊은 소방관이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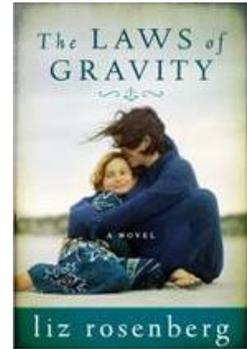
브래디 브래드쇼는 오클라호마시티 테러로 엄마를 잃고 매년 사고 당일에 열리는 추모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열일곱 살이던 2007년에도 여전히 그리운 엄마를 떠올리며 그곳을 찾은 브래디는 같은 아픔을 지닌 소녀를 만난다. 제나 필립스라는 이름의 그 소녀도 테러로 엄마아빠를 동시에 잃고 힘겹게 일상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몇 마디 대화로 서로에게 깊이 끌린 브래디와 제나는 그 날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위로한다.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연락처를 주고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연락은 달지 않았다.

그 날의 소중한 시간을 잊지 못한 브래디는 이후 11년간 매년 추모 행사에 올 때마다 혹시라도 제나가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편지를 남겼다. 쓸쓸하고 썩한 얼굴로 올해도 그 애타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철제 울타리에 조용히 끼워 넣는 모습은 마침 그 곳에 도착한 애슐리와 에이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편지를 남기고 쓸쓸히 자리를 떠나는 그 공허한 표정에 깊은 인상을 받은 애슐리는 브래디가 남긴 편지를 읽고, 제나를 찾을 수 있게 꼭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난생 처음 본 사람을 다짜고짜 돕겠다는 애슐리의 생각은 가족들에게 뜬금없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뿐이다. 게다가 상대가 하필이면 준수한 외모의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다른 마음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산다. 그럼에도 결심을 꺾지 않은 애슐리는 브래디에게 연락해 돕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탁월한 검색 능력을 발휘하여 백방으로 제나를 찾기 시작한다. 애슐리의 열정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브래디는 제나와 재회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린다. 과거를 모두 털고 신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제나와 신앙심은 생각해본 적도 없이 과거를 놓지 못한 브래디, 두 사람은 분명 서로에게 끌리지만 보이지 않는 미묘한 벽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까? 신앙으로 인한 젊은 연인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리며 따뜻한 가족애를 함께 그린 감동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카렌 킹스버리(Karen Kingsbury)는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현재까지 출간된 책은 2,5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리버티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Redemption』 시리즈, 『Sunrise』 시리즈, 『Above the Line』 시리즈 등 수백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제목 : THE LAWS OF GRAVITY
가제 : 중력과도 같은
저자 : Liz Rosenberg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3년 5월 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 독일 번역 출간 / 아마존 여성소설 TOP 20, 킨들 소설 부문 TOP 10
- ★ “연인을 불러 일으키는 현실적인 소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빛을 지고 살아갈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와 같은 복잡한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 내셔널 북어워드 결승 진출 작가, 『Small Damages』의 저자 베스 케파트
- ★ “도덕과 개인의 책임, 법률, 그리고 복잡하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유대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 - 「보스턴 글로브」

니콜과 세 살 많은 오빠 아리는 걸어 다니기 전부터 꼭 붙어 지냈다. 엄마가 서로 자매라 사촌인 두 사람은 느지막한 오후에 마당에 내놓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빨대가 꽂힌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똑같은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은 꼬맹이 둘이 몇 시간이고 앉아서 마치 술 한잔 앞에 두고 인생을 고민하는 중년 부부마냥 온갖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귀엽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도 남다른 그들의 우애가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철부지 시절에 니콜은 아리의 심장을 두근대게 한 일종의 첫사랑이기도 했다. 빨간 머리카락에 새하얀 피부, 가냘픈 체구에 두 눈이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니콜에게는 양쪽 가족 중 누구와도 닮지 않은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졌다. 나이가 들고 서로 각자의 짝을 찾아 결혼을 한 뒤에도 두 사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 아리의 아내 미미는 니콜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 남매의 끈끈함은 두 가족의 강력한 유대로 확대됐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들 일이 생기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니콜의 목 한쪽에 작은 멍울이 만져질 때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주치의도 그냥 분비샘이 부어서 그런 거라고 남편 제이도 별 일 아닐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멍울은 사라지지 않았고,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백혈병과 림프종이라는 무시무시한 병명과 함께 누구보다 생기 넘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어린 딸을 두고 죽어가는 말기 환자가 되어 버렸다. 이제 3학년인 딸 데이지의 일상과 중요한 행사에 함께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들이 이어지고, 그치지 않는 구역질과 통증,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울렁대는 증상이 온종일 니콜을 집어 삼켰다. 이제 겨우 30대 중반에 언제 어떻게 생이 끝날지 모르는 채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환자가 된 니콜에게는 분노만 남았다. 더 이상 딸아이를 챙겨줄 수 없다는 것, 생일 파티도 열어주지 못하고 아이가 치과에 갈 때 같이 가지 못

하는 것, 소중한 일상에서 자신은 그림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때 기적처럼 구세주가 나타났다. 바로 사촌오빠 아리였다.

아리는 아들 줄리안이 태어날 때부터 제대혈을 보관해두었다. 매사에 철저히 계획해서 대비하는 것이 습관인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라 5천 달러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도 개의치 않았다. 딸아이 리아나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연분만을 생각했지만 분만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수술로 제왕절개를 해야 했던 딸 리아나 역시 제대혈을 급히 챙길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다급히 부탁한 것도 아리였다. 사촌동생 니콜이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하루하루 병들어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아리는 문득 자기 아이들을 위해 보관해둔 제대혈이 니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아내 미미도 줄리안의 제대혈을 니콜에게 기증하자는 남편의 말에 잠시 동의했지만, 마음을 바꿔 먹고 그러기로 동의했다. 수십 년 전, 익사할 뻔한 니콜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던 아리가 또 다시 그녀의 생명을 구해주는 동아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제대혈 기증을 확인한 후, 줄리안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 아이의 목에 니콜처럼 조금 부어오른 멍울이 발견된 것이다. 기겁한 아리와 미미는 얼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고, 다행히 양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지만 이 일은 부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양성이 아닌 악성 종양이 생기면? 그 때 줄리안의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수단이 될 제대혈을 니콜에게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깊은 고민에 빠진 부부는 결국 기증하기로 했던 결심을 뒤집어버린다. 다시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이 꺾인 니콜과 남편 제이는 크게 낙심하고, 왜 데이지를 낳을 때 제대혈을 보관해두지 않았냐고 질책하는 아리의 말에 깊이 상처를 받는다. 형편이 아리만큼 풍족하지 않아서 5천 달러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아리가 야속하기만 했다. 빈정이 상황 대로 상한 니콜은 껄뽀한 마음에 아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준다고 약속한 제대혈을 내놓으라는, 이 엉뚱하면서도 난감하고 서글픈 소송은 곧 은퇴를 앞둔 70대 판사, 솔로몬 리처의 손에 맡겨진다. 황당하지만 웃지 못할 이들의 갈등을 유머를 담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가족과 희생,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즈 로젠버그(Liz Rosenberg)는 일반 소설과 아동 소설, 시, 논픽션 등 다양한 저서를 서른 권 이상 발표했다. 보스턴 글로브에서 도서 리뷰 칼럼리스트로도 15년간 일했다.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Monster Mama』, 『The Moonlight Palace』, 『What James Said』, 『Home Repair』 등이 있다.

제목 : THE KILLING OF BUTTERFLY JOE

가제 : 나비 사냥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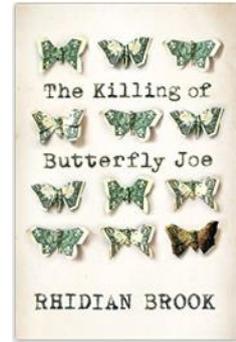
저자 : Rhidian Brook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18년 3월 8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의 프로듀서가 맡아 영화로 제작될 예정

★ “재미있고 특이한 이야기. 어린이라면 누구나(성인도 상당수가) 호그와트에 가고 싶어 하듯이 이 책의 주인공, 뉴욕 업스테이트 시골 출신의 나비 판매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 - 「타임」

★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 정신없이 터지는 사건들, 특특 튀는 대화들로 꽉 채워진 와일드한 아메리카 도보여행기. 작가의 글은 여전히 사려 깊고 매력적이며, 재미 있다.” - 「빅 이슈(Big Issue)」

난생 처음 미국을 여행하고 ‘미국판 오딧세이’ 같은 특별한 여행기를 써보리라 마음 먹은 웨일즈 출신의 젊은 청년, 류 존스는 뚜렷한 목적지나 앞으로의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다. 아름다운 캐츠킬 산맥의 울창한 숲 사이, 폭포가 쏟아지는 한적한 곳에서 특이한 남매를 만난 것도 순전히 우연이었다. 슈퍼맨을 연상시키는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몸매에 눈에 뵈지 않을 만큼 거구인 조 보스코, 그리고 폭포 아래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수영을 하던 아름다운 메리 앤 보스코. 두 사람이 류의 삶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류가 만난 남매의 직업은 희귀한 나비를 잡아 유리 덮개 안에 고정시키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나비 사냥꾼’이다. 두 사람이 제시한 매력적인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 류는 이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나비 사업에 동참하지만, 얼떨떨할 만큼 빠르게 휘몰아친 사건이 연속되고 결국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호기롭던 조는 행방불명이 되고 셋이 함께 꿈꾸던 찬란한 미래는 모두 사라졌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태어나서 계속 웨일즈에 살았던 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자꾸만 가라앉는 슬픔을 달래고 싶은 마음과 늘 궁금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색다른 경험을 작가가 꿈인 자신의 첫 번째 저서의 소재로 활용하고픈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등을 떠밀었다. 뉴욕에 사는 이모 집에 얼마 동안 신세를 지내기로 한 류는 이모의 배려로 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헛간을 임시 작업실로 개조한 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글을 써보려고 했다. 하지만 영 진도는 나가지 않고, 매일 아침 눈을 빛내며 ‘책은 잘 되고 있냐’고 묻는 이모에게 ‘술술 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캐츠킬 산맥의 구석진 곳에 숨겨진 폭포에 도착한 류는 널찍한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모 집에서 몰래 가져온 책을 읽다가 깜박 잠이 든다. 바로 옆에서 누가 떠들어대는 소리에 슬며시 눈을 떠보니,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웬 곤충 채집망 같은 것을 들고 씩 웃으

며 내려다보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바로 조 보스코였다.

조가 노린 것은 누워 있던 류의 바로 옆에 내려 앉은 나비였다. 순식간에 채집망을 휘둘러 검정과 흰색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그 특이한 나비를 마침내 포획한 조는 망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단번에 나비의 송통을 끊어버렸다. 고요한 물가에서 바지직, 손가락으로 나비의 몸통을 짓누르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조는 영국 억양이 강하게 느껴지는 류의 말투에 깊은 호감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왜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울하게 책을 읽고 있느냐고, 죽집게마냥 처음 본 류의 다소 가라 앉은 마음 속까지 정확히 들여다본다. 이렇듯 특이한 남매와의 만남은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해 혼란스럽기도 했던 류에게 진한 인상으로 남았다. 물론 너무나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웠던 메리 앤의 빛나던 피부도 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류가 어찌된 영문인지 류가 머물고 있는 줄리아 이모 네 집까지 찾아온다. 그의 손에는 어제 산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류가 읽고 있던 그 책이 들려 있었다.

약간 허스키한 음성에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재빠른 조는 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그를 비롯한 보스코 집안이 오래 전부터 해온, 나비 사업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희귀하고 아름다운 나비를 생포한 후 조심스럽게 박제하고 멋진 액자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보스코 집안에서 여러 가족들이 달려들어 키워온 사업이었다. 조는 방대한 미국 대륙의 모든 가정에 이 아름다운 나비 액자가 하나씩은 걸리게 될 거라 호언장담했다. 아름다움에는 수명이 없는 법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조는 류의 영국식 억양이 미국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따라서 영업에 꼭 필요한 요건인 낯선 사람의 호감을 사는 일에 제격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한 것이다. 그는 미국을 모험하고 그것을 글로 쓸 생각이란 류의 말에 ‘직접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되어보라’고 제안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었던 류는 결국 그와 손을 잡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나비 사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이 일에 뛰어든 보스코 집안의 별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 둘 만나고 특정한 색, 특정 종류의 나비를 광신도처럼 떠받들면서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조를 보면서 류는 이들에게 어딘가 섬뜩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나비를 쫓느라 가족을 내팽개친 남편을 대신해 사업을 이끄는 이디스, 나비 수집광들 중에서도 ‘왕’으로 꼽히는 사악한 인물 워저드 등 기상천외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나비를 찾아 큰 돈을 벌어보려고 시작한 일은 점점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복음주의가 온 나라에 퍼들썩했던 80년대를 배경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종교처럼 믿었던 이들의 특별한 삶을 나비 수집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풀어낸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디언 브룩(Rhidian Brook)은 소설과 TV 드라마, 영화 극본을 쓰는 작가로 활동해 왔다. 데뷔 소설 『The Testimony of Taliesin Jones』로 서머릿 몸 상을 포함하여 여러 상을 수상했다. 세 번째 소설 『The Aftermath』는 25개 언어로 번역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고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로 제작됐다.

제목 : THE LAST NIGHT OUT
가제 : 마지막 파티
저자 : Catherine O'Connell
출판사: Severn House Publishers Ltd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서스펜스소설



- *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카탈루냐 어 포함) 번역 계약 체결
- * “캐서린 오코넬리의 뛰어난 스토리텔러다. 능수능란한 이야기의 흐름과 사회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눈이 돋보인다.” - 소설가 프랭크 맥코트(Frank McCourt), 작가의 전작에 대한 서평

결혼을 앞둔 친구를 위해 파티를 연 여섯 명의 친구들. 그러나 술과 춤, 시끄러운 음악으로 흥겹고 소란스러웠던 금요일 밤의 파티는 살인 사건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난다. 1988년 6월, 남자와 여자고 장발이 유행이었고 동성연애자들이 공공 숨어 지내다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던 시대. 에이즈는 이미 널리 퍼진 병이었고 컴퓨터나 이메일은 낯선 기술이었고 휴대전화는 신발 한 짝만해서 문자메시지로 누군가와 용건을 주고받는 일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로 여겨지던 시대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서로 얽히고설킨 사람들의 거짓말이 살인사건 전담 형사, 론 오넬리의 손에 한 꺼풀씩 벗겨진다. 겉으로는 살해 동기도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보이는 피해자의 친구들과 그 곁을 맴돌던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과 충동, 탐욕, 진실을 덮으려는 발버둥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서스펜스 소설이다.

파티의 주인공은 결혼을 딱 2주 앞둔 매기였다. 결혼 전 ‘진탕 먹고 마시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앤젤라와 켈리, 캐롤앤, 수전, 그리고 나타샤였다. 매기의 남편이 될 약혼자는 다른 도시로 출장을 떠났고 캐롤앤의 집에서 버르고 버르던 파티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방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수다를 떨던 이들은 밤 10시경 두 팀으로 나누어졌다. 나타샤는 이미 먼저 일어나 집에 갔고 수전이 잔뜩 취한 앤젤라를 택시 뒷좌석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나머지 세 사람, 매기와 켈리, 캐롤앤은 2차를 즐기기 위해 클럽과 바가 있는 시내로 향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 흥겨운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어느 때와 같이 새벽 조깅을 하기 위해 일찍 밖으로 나온 켈리는 늘 달리던 코스 중간에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진 것을 발견한다. 그 주변에서 웅성대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켈리는 통제선 안쪽을 들여다보던 중, 신문지로 덮인 누군가의 몸과 그 밑으로 삐죽 튀어나온 발에 시선이 멈춰버렸다.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발에 신겨진 스틸레토 힐 때문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술에 취해 질리처럼 흐느적대던 친구가 그 위험천만한 신발을 신고 있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순간 이성을 잃고 통제선 안으로 뛰어 들어간 켈리는 신문지를 단번에 치우고 그 구두의 주인공을 보고 만다. 불길한 예감대로, 그곳에 쓰러져 두 눈을 뜬 채로 죽어 있는 시체는 앤젤라였다.

매기에게도 그 날 아침은 최악의 악몽이었다. 켈리의 연락으로 앤젤라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매기에게 알려주려고 수전이 아침 일찍부터 쉴 새 없이 전화를 거는 바람에 겨우 눈을 뜬 매기는 침대에 누워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기겁한다. 그제야 드문드문 기억나는 전날 밤의 기억, 바에서 처음 만난 남자를 집까지 데려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겨우 떠올랐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약혼자가 겨우 며칠 출장을 간 사이에 이런 난잡한 짓을 하다니,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던 매기는 수전이 전하는 앤젤라의 사망 소식에 머리가 하얘졌다.

살인사건 전담반을 이끄는 론 형사는 사건 현장에 불쑥 뛰어들어 오염하던 켈리를 조사하던 중, 죽은 피해자 앤젤라와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동안 친구였다는 이 여성의 말을 전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켈리는 마약 소지 혐의로 여러 번 체포된 기록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도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멀쩡해 보였던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전부 어딘가 구린 구석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캐롤앤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밤 남편이 자정쯤 귀가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그녀의 남편 마이클은 새벽 다섯 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온 것으로 밝혀졌고 오래 전부터 죽은 앤젤라와 불륜 사이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앤젤라와 사업 파트너인 앨버트라는 남성도 그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게다가 앨버트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앤젤라가 죽기 몇 시간 전, 친구들과 함께 게이 바에 갔으며 그곳에서 어떤 키 크고 잘 생긴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 론 형사는 앨버트가 봤다는 그 남자가 캐롤앤의 남편, 마이클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들의 관계가 살인과 관련이 있을까?

앤젤라를 택시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준 수전의 사생활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였다. 유부남인 빈스와 내연 관계인 수전은 사건 조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빈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오랫동안 몰래 수전과 만나면서 점점 집착에 가까워져 그녀를 사랑하게 된 빈스가 매기의 결혼 기념 파티가 열린 그 날, 혹시라도 수전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건 아닐까 의심한 나머지 미행을 붙였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빈스가 고용한 미행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먼저 그 사실을 고백한 빈스의 말에 수전은 당혹스러워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날 미행 임무를 맡은 남자가 매기에게 반해 하룻밤을 보낸, 스티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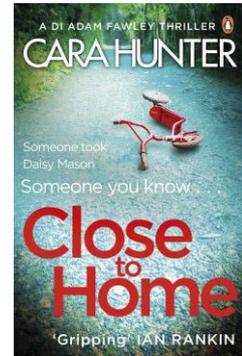
알려지지 말아야 할 비밀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감춰야 할 일들이 서로서로 엮여 있는 이 복잡한 관계들 사이에서 과연 론 형사는 앤젤라를 죽인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매기의 결혼식은 점점 다가오고, 궁지에 몰린 이들이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사건도, 어떻게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켜내려 했던 이들 모두의 삶에도 큰 균열이 생긴다. 연이은 거짓말에 영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끝까지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안타까운 몸부림과 그 속에서 차분하게 진실을 찾아가는 켈리, 론 형사의 집요한 추적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캐서린 오코넬리(Catherine O'Connell)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문학 센터 '아스펜 워즈(Aspen Words)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High Society Mystery』 시리즈를 썼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CLOSE TO HOME
가제 : 가까운 사람
저자 : Cara Hunter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17년 12월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업데이트 소식

- 2017년 12월 출간 이후 영국에서만 25만 부 이상 판매
-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러시아, 대만,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추가 판권 계약
- 출간 전 미국, 독일, 중국, 노르웨이, 스웨덴 계약
- 검은 수첩의 작가 이언 란킨(Ian Rankin)의 찬사 - “손에서 놓기 어려운 아찔한 이야기”

파티가 한창이던 시각, 집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던 여덟 살짜리 소녀가 실종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각은 새벽 두 시. 아직 파티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집에서 마주한 아이의 부모는 어딘가 묘한 구석이 있었다. 실종 아동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간 폴리 형사는 오랜 경험과 개인적인 사연 탓에 이 사건의 심상치 않은 면을 단번에 알아챈다. 이 책은 역사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미스터리 소설들로 유명한 작가 린 셰퍼드(Lynn Shepherd)가 카라 헌터라는 필명으로 새롭게 선보인 3부작 범죄소설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이다.

사라진 아이, 수상한 가족, 하나씩 드러나는 비밀만큼 멀리 달아나는 아이의 행방

아주 불편한 진실이지만, 실종된 어린이 열 명 중 아홉 명은 가까운 사람의 손에 납치된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 아이가 사는 마을 어딘가에서 자주 마주치던 인물이 범인이다. 7월의 어느 여름 새벽, 출동 연락을 받고 데이지의 집으로 향하면서 폴리 형사는 그 사실을 되새긴다. 그도 믿고 싶지 않지만 지난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이 그랬다. 여덟 살 데이지는 폴리 형사가 대문에 들어서기 몇 시간 전, 학교 친구들과 그 부모들이 모인 파티가 떠들썩할 때 사라졌다. 상당히 넓은 집 곳곳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눈에 띄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잘 정리된 장식품들, 비싼 가구가 들어선 거실에 데이지의 아빠 베리 메이슨과 아이의 엄마 세론, 그리고 데이지보다 두 살 많은 오빠 레오가 기다리고 있었다. 폴리 형사는 실종 사건을 전담해온 덕에 사라진 아이의 부모와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가족은 어딘가 달랐다. 분노와 공포, 죄책감, 불안감, 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억지스러운 자

기 부정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얼굴에 가득 서려있게 마련인데 베리와 세론은 둘 다 그렇지 않았다. 도무지 감정을 읽을 수 없이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던 아이 아버지는 형사가 질문을 던져도 고개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귀가 안 들리나, 폴리 형사가 의아해하려던 찰나, 베리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폴리 형사는 이 가정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도 불행한 가정의 일원이었기에, 그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

이름처럼 데이지 꽃과 같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던 데이지는 밤 열 시경, 불꽃놀이를 할 때쯤 정원에서 발견된 것을 끝으로 사라졌다. 손님들 차량이 드나드느라 저택 측면의 문은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 자기 몸보다 눈에 띄게 큰 옷을 입고 앉아 있던 데이지의 오빠 레오는 실종 당시 아이의 옷차림을 묻는 폴리 형사에게 3일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데이지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걸치고 함박웃음을 짓는 예쁜 소녀의 모습. 그 동영상에 담긴 모습처럼 하루 종일 즐거웠다는 데이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야기는 폴리 형사의 지나온 삶과 불행했던 결혼생활, 최근에 그에게 닥친 시련과 데이지의 사건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이 불안한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서히 드러냈다. 외모를 치장하는 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과하게 신경 쓰는 데이지의 엄마, 시종일관 차갑고 방어적인 데이지의 아빠, 자기 세계에 갇힌 아이 같은 데이지의 오빠까지, 폴리 형사는 식구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이들이 감추려던 비밀과 의혹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들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데이지의 행방은 더 미궁으로 빠져만 간다.

필명을 사용했지만 강렬한 표현과 다양한 인물의 시선, 이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확 비틀어서 전혀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반전 등 작가 특유의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 있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린 셰퍼드(Lynn Shepherd)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정통 영국 소설, 뛰어난 탐정소설, '문학적인 범죄소설'을 쓰는 것을 목표로 삼고 『A Treacherous Likeness』, 『Charles Maddox』 시리즈, 『The Solitary House』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NON-FICTION

제목 : SICK

가제 : 아주 많이 아픈 사람으로 사는 것

저자 : Porochista Khakpour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보스턴 글로브」, 「나일론」, 「허핑턴 포스트」, 「버스틀(Bustle)」, 「버즈피드(Buzzfeed)」, 「더 밀리언스(The Millions)」 등 여러 매체에서 “2018년 기대작”으로 선정
- * “미스터리 소설처럼 읽히면서도 중심에는 사랑의 노래가 느껴지는 책. 질병과 건강, 치유와 고통, 신체와 자아 사이의 미묘한 틈과 방대한 거리에 관한 이야기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Wild」의 저자 셰릴 스트레이드
- * “인내와 생존, 희망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금세 인지한다. 감각이 둔한 사람이라도 평소에 잔병이 크게 없다면 ‘감기가 오려나?’ ‘어제 부딪힌 곳에 멍이 들려나?’ 싶은 생각이 스친다. 미세한 증상도 대체로 선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서 큰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이 닿는 한 평생을, 컨디션이 좋았던 때가 드물 정도로 매일 아프다면 어떨까? 이란 출신의 소설가로 큰 호평을 받아온 저자는 다섯 살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에 내내 시달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잠재우려다 약물 중독과 정신 질환까지 얻은 뒤에야 비로소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응급실을 밥 먹듯이 드나드는 삶, 분노와 무기력이 오락가락하는 일상, “죽지 않고 이렇게까지 아플 수가 있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오랜 세월과 10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를 쓰고서야 ‘라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평생 환자로 살아온 그 시간을 저자는 가감 없이 진솔한 글로 기록했다. 병의 원인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저자가 헤맨 뉴욕과 LA, 뉴멕시코, 독일 등 여러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저자는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불확실성이 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란에서 태어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살다 테헤란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다시 LA로 건너온 생존자 중 한 사람인 저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불면증과 손 떨림 같은 증상을 겪었다. 병원에서도, 부모님도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을 겪은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라 생각했고 나이가 들면 관촬아질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신체 증상은 물론 정신적인 증상까지도 한층 더 심각해져서 극심한 현기증과 환

각 증상까지 나타나고 위험할 만큼 열에 펄펄 끓는 일도 잦았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명확한 이유와 치료법을 내놓지 못했다. 심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절박한 심정에 저자는 약물이 줄 수 있는 “전혀 다른 상태”에 매혹되고 말았다. 코카인과 헤로인, 벤조디아제핀에 중독되고도 더욱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 기분 장애에 시달리던 저자의 몸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다시 악화되는 주기가 계속 반복됐다. 누구든 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만 했던 삶,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불편하고 미안했던 시간과 마침내 정확한 진단을 알게 됐을 때의 심정,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겨내기 위해 다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저자는 있는 그대로 들려준다. 질병과의 힘겨운 투쟁기, 생존기이자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린 회고록이다.

<목차>

원가 잘못된 몸

머리말

1. 이란과 로스앤젤레스 / 2. 뉴욕 / 3. 메릴랜드와 일리노이
도움을 받으며

4. 로스앤젤레스 / 5. 뉴욕

겉모습

6. 펜실베니아 / 7. 산타페와 라이프치히

장소

8. 로스앤젤레스 / 9. 산타페

아주 많이 아픈 사람으로 사는 것

10. 뉴욕

사랑을 잃고, 다시 찾고

11. 다른 곳이라면 어디든, 훌쩍 떠나다

맺음말

<저자 소개>

포로치스타 하크푸르(Porochista Khakpour)의 데뷔소설 『Sons and Other Flammable Objects』는 「뉴욕타임스」 에디터스 초이스, 「시카고 트리뷴」 ‘올 가을 최우수 도서’로 선정되고 2007년 시카고 도서상 데뷔소설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소설 『The Last Illusion』은 2014년 NPR, 「커커스 리뷰」 등 여러 매체에서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논픽션은 「뉴욕타임스」, 「LA 타임스」, 「엘르」 등에 여러 번 소개됐다. 현재 스톤코스트 MFA 프로그램과, 버몬트 칼리지 MFA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STOICISM AND THE ART OF HAPPINESS

가제: 스토아철학에서 얻는 행복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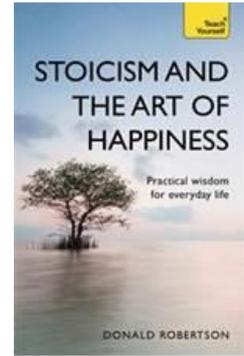
저자: Donald Robertson

출판사: Teach Yourself

발행일: 2013년 5월 31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철학/자기계발



*** 루마니아, 포르투갈 판권 번역 계약 체결**

*** 고대부터 전해진 스토아철학에서 발견한 21세기 현대인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줄 전략과 심리적 안정을 찾는 기술**

기원전 301년에 그리스 철학자, 키프로스의 제논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스토아철학은 500년 가까이 활발하게 알려지며 키케로,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당대의 뛰어난 철학가들을 통해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틀로 자리잡았다. 인지행동치료를 중심으로 한 심리치료에 매진해온 저자는 지루한 철학 책이나 나올법한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스토아철학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맞는 삶의 지침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성적인 판단,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 스토아철학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설 새 없이 변하는 세상과 불안한 미래, 어렵기만 한 대인관계에 괴로워하는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탄탄하게 잡아줄 중요한 전략과 기술이 담겨 있다. 저자는 스토아철학의 역사와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는 대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법,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꾸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법과 같은 중요한 기준을 고대 철학의 지혜에서 배울 수 있다.

현대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지면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고대 철학자들은 이와 달리 남들과 상충될지언정 나름의 답을 당당하게 제시했고 스토아철학도 그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다. ‘선’을 지키며 사는 것, 우주와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고 인간 본연의 특징인 이성과 사회성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을 주된 목표로 내건 스토아철학은 현대에 들어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스스로를 제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어에서 ‘철학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philosophical’이 ‘침착한, 냉철한, 이성적인, 초탈한’의 뜻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철학적인이라는 말이 곧 스토아주의를 대표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저자는 고대 서양 철학이 대부분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보았고, 스토아철학에서는 이 행복이 이성적인 자기애와 우정, 타인을 향한 애정, 더 크게는 인류애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했다는 사실에서 공통된 의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성을 잃지 않는 것, 그러면서 타고난 것, 자연에

서 주어진 것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중시한 스토아철학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자기계발', 즉 개인의 발달과 심리적 안정을 찾는 기술과 명확히 맞닿아 있다. 이에 저자는 고대사회와 현대사회에서 찾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지행동치료의 초기 버전이라 할 만한 스토아철학의 원칙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불안정한 삶을 안정적으로 대폭 바꾸는 법, 자기 평가의 틀로 활용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현대 스토이시즘

1. 스토아철학의 방식: '자연과 일치된 삶'
2. 스토아철학의 윤리: 선의 특성
3. 철학의 전제 ('열정의 치료')
4. 욕망을 수련하는 것 (스토아철학의 수용 방식)
5.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지혜
6. 행동을 수련하는 것 (스토아철학의 자선활동)
7. 미리 계획된 고난
8. 판단을 수련하는 것 (스토아철학의 마음챙김)
9. 자기인식, 그리고 '스토아철학의 기로'
10. 멀리서 내려다본 관점, 스토아철학의 우주관
11. 죽음에 관한 스토아철학의 생각

<저자 소개>

도널드 로버트슨(Donald Robertson)은 런던의 개인 클리닉에서 인지행동치료와 임상 최면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 심리치료사로 15년 이상 활동해 왔다. 심리치료 분야 학술지와 간행물에 수십 편의 글을 기고했으며 『The Philosophy of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The Practice of Cognitive-Behavioural Hypnotherapy』 등의 저술 작업에도 참여했다.

제목 : 부지런한 건축가, 비버의 놀라운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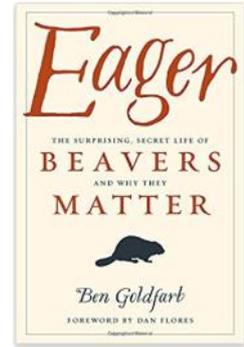
저자 : Ben Goldfarb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7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과학/생태



- * “영리하고 창의적이고 회복력이 뛰어난 이 설치류 동물의 엄청난 팬이 되도록 만드는 책이자,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동물이 우리의 습지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잔소리하게 만드는 책이다.” – 『The Soul of an Octopus』의 저자 사이 몽고메리
- * “비버를 그저 귀여운 동물로만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현대 생태학에서 이 동물의 핵심 기능을 얼마나 하찮게 만드는지 알려준다.” – 조지 메이슨 대학교 환경학 교수, 토머스 E. 러브조이 (Thomas E. Lovejoy)

시원하게 흘러가는 강과 개울을 생각할 때, 우리는 파랗게 투명한 물이 크고 작은 바위 사이로 팔팔 흐르는 모습을 떠올린다. 아이들이 강을 그릴 때도 대부분 스케치북에 그런 풍경이 담긴다. 정말로 강은 이런 모습이 ‘정상’일까? 환경관리학을 공부하고 환경 보존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취재해온 저자는 북미 대륙에 설치류의 일종인 비버가 여기저기 넘쳐나던 시절만 해도, 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작고 까만 눈을 반짝이며 조그만 손에 돌을 쥐고 조개를 툭툭 깨는 귀여운 동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비버는 그 매끄러운 털을 얻기 위한 대대적인 사냥이 시작되기 전, 강에 나무로 댐을 지어 환경을 지키는 부지런한 ‘건축전문가’로 활약했다.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시절에 강은 바닥의 흙이 부유하는 뿌연 늪의 모습에 더 가까웠고, 무자비한 사냥으로 수백만 마리에 달하는 비버가 사라진 뒤에는 맑고 투명하지만 점점 말라가는 강과 개울만 남았다. 저자는 비버의 생태에 관한 컨퍼런스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작고 소중한 동물의 엄청난 역할을 인지하게 된 사연과 이후 열성적인 비버 연구자가 되어 추적한 비버의 놀라운 기능, 다시 비버의 개체 수를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수백 년에 걸쳐 인간의 사냥 대상이 된 비버는 뛰어난 회복력 덕분에 아직도 월마트 주차장이나 골프장의 인공 연못 같은 곳에 출몰하며 근근이 생을 이어가고 있다. 저자는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비버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서식해 왔는지 조사하고,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수문학계의 ‘스위스 나이프’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즉 비버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만 갖추어지면, 서식지에서 일어난 어떠한 문제도 전부 다 해결할 정도로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비버가 환경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식과 진흙, 돌, 나뭇가지를 모아서 물의 흐름과 수직 방향으로 기초 공사를 한 다음 차근차근 댐을 짓는 방식을 제시한다. 그 뛰어난 지력이 자신의 서식지를 빼앗은 인간들을 향한 이후에는 값비싼 광섬

유 케이블을 잘라버리거나 통신 설비를 끊어버리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저자는 비버가 사라진 뒤 환경에 발생한 엄청난 악영향을 세계 여러 생물학자와 과학자, 환경 전문가들이 뒤늦게 깨닫고 현재 이들의 개체 수와 서식지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한다. 더불어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될 이 유능한 기술자, 비버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비버가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생물다양성의 회복과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효과도 알려준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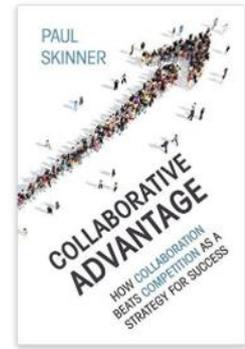
머리말

1. 짓고 만드는 방식
2. 쫓겨나다
3. 속임수, 그리고 배척
4. 비버의 속삭임
5. 댐의 영역
6. 캘리포니아의 강줄기
7. 사막에 꽃을 피우는 방법
8. 늑대 천국
9. 연못을 건너
10. 설치류가 본연의 일을 하게 하라

<저자 소개>

벤 골드팜(Ben Goldfarb)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주로 야생 환경 보존과 해양학에 관한 이슈를 취재하고 있다. 「가디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월드 와일드라이프 매거진」 등에 글을 기고해왔다.

제목 : COLLABORATIVE ADVANTAGE
가제 :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는 협력의 기술
저자 : Paul Skinner
출판사: Robinson
발행일: 2018년 6월 2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비즈니스



- *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 사업체나 비영리단체, 사회환경단체 모두 반드시 읽어야 한다.” - 『UNDERSTANDING DIGITAL MARKETING』의 저자 데미안 라이언
- * “기회를 새로운 시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볼 때 비즈니스의 문이 열린다. 저자는 경험에서 우러난 이 사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 PwC UK 선임 파트너, 폴 조지(Paul George)

무조건 경쟁해서 이기는 방식은 사업이나 조직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발전과 성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 심지어 그와 같은 경쟁이 조직의 최종 목표 달성에 오히려 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졌다.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전략 컨설턴트로 협력 중심의 경영 방안을 교육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경쟁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협력의 이점’ 방식을 소개한다. 사업과 조직체를 운영하는 당사자는 물론 소비자, 더 넓게는 사회 전체에 훨씬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의 기술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지침으로 정리하여 모든 분야의 리더가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물론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저자는 협력은 협력할 때 더욱 증대되는 ‘협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왜 협력을 해야만 할까? 협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협력 방식이 구축되었다면, 구체적인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질문의 답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 1부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현 시대에는 성공의 기회를 잡고 성공의 규모를 기대보다 더 크게 키우는 일에 경쟁 방식이 부적절한 이유와 협력이 더 유리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 책 2부에서는 조직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협력과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협력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책 3부에서는 협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 조직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보여주고, 세상에 무궁무진한 기회를 협력이라는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와 함께 저자는 협력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외부에서 끌어오기’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총 5단계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1단계는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과 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무엇을 어디까지 더 끌어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위해 실제로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할 방안을 모색한다. 2단계는 공통 목표를 위해 구성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하는 것이며, 3단계는 조직에 필요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어 4단계는 구성원 중에서도 남들보다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마지막 5단계에서는 함께 조직을 이끌 ‘경영 파트너’가 될 만한 대상을 물색하여 사업 전체를 더욱 확장한다.

특별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만 무작정 데려와서 까다로운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맡겨버리는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방식 대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지닌 가장 뛰어난 면을 긍정적으로 끌어냄으로써 개인과 조직 모두 건강하게 발전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방법이 담긴 경영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1부. 왜? - 협력의 이점: 비즈니스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목표

1. 협력의 이점 소개
2. 협력의 이점이 주목 받는 이유
3. 협력의 이점이 약화된 이유
4. 협력의 이점을 오래오래 누리는 법!

2부. 어떻게? -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협력의 이점

5. 외부에서 끌어오기
6. 1단계: 공통 목적 찾기
7. 2단계: 기회 만들기
8. 3단계: 참여 유도하기
9. 4단계: 반복하고 속도 높이기
10. 5 단계: 파트너십 형성하기

3부. 무엇을? - 협력의 이점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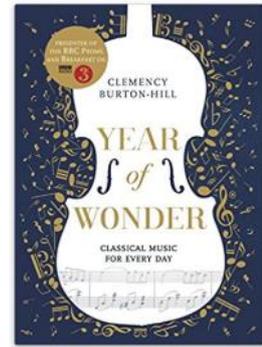
11. 비즈니스 문제 해결
12. 전 세계적인 문제의 대처 방안

결론. 사람들의 삶을 보다 유리하게 개선하는 기술

<저자 소개>

폴 스킨너(Paul Skinner)는 조직의 성공과 경제적 가치를 창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 업체 ‘Agency of the Future’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영업과 마케팅 기술을 교육하는 업체 ‘Pimp My Cause’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2014년 엡지힐 대학교 경영대학원 명예학위를 수여 받고 영국 마케팅협회로부터 ‘올해의 컨설턴트’ 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제목 : YEAR OF WONDER
가제 : 클래식 선율
저자 : Clemency Burton-Hill
출판사: Headline Home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예술/음악



- ★ 미국, 중국(간체), 폴란드 출판 계약 체결
- ★ “페이지마다 열정이 느껴진다.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된 엄청난 플레이리스트를 만날 수 있다. 매일 색다른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 「아이리시 인디펜던트」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지루하고 잠이 쏟아지는 음악이라는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창시절에 음악 ‘시험’을 본답시고 대표적인 교향곡이나 슈베르트, 베토벤 같은 역사적인 음악가의 작품 중 일부분을 ‘외우도록’ 만든 교육방식도 그러한 인식에 큰 몫을 했으리라. 또 한 편으로는 클래식 음악은 왠지 교양 있고 품격 있는 문화생활이라는 편견도 만만찮게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깔려 있다. 클래식 음악 자체도 대중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 높은 음악이고, 사회경제적인 배경, 교육 수준, 심지어 피부색까지도 특정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만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들 생각한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방송인, 작가로 맹활약하면서 영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저자는 이와 같은 편견을 모두 거둬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일 하루에 한 곡씩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목록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저자는 저명한 작곡가가 만든 역사적인 곡이라고 해서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식의 의미부여는 불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음악은 음악일 뿐, 우위를 따지거나 공부하고 분석하는 대신 찌든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아름다운 선율에 푹 빠질 수 있는, 음악 본연의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이에 ‘너무 중요하니까 꼭 들어야 하는 클래식’이 아닌, 이런 음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기에는 억울할 정도로 아름답고 듣기 좋은 음악들로 365일을 꽉 채워 그 곡을 누가, 어떤 계기로 어떻게 작곡했는지 쉽고 짤막한 설명과 함께 소개한다. 마치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한 편 듣는 것처럼 간결하면서도 어떤 곡인지 꼭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저자의 설명에서 클래식 음악의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저자의 오랜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음악을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연주하면서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인간 본연의 귀중한 특성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는 모습도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힘들 때 우리가 자연스레 음악에 기대는 것으로도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저자는 클래식 음악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친근하게 위로를 얻고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음악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했다. 7월 11일의 음악으로 선정된 조지 거슈윈의 <베스, 그대는 나의 여인>은 매일 아침마다 네 곡씩 기계처럼 음악을 작곡하던 열혈 음악가 거슈윈이 처음으로 오페라를 작곡하기로 하고 소설 『포기(Porgy)』를 원작으로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완성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흑인 음악, 재즈의 정서를 담기 위해 1930년대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오페라 배우 대부분을 흑인으로 구성하고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기 위해 뉴욕의 집을 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살만큼 거슈윈의 열정이 남달랐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이처럼 저자는 하루 한 곡씩 소개하는 음악마다 간략한 배경과 함께 클래식 음악 혹은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다른 세계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클래식 음악도 절대 지루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먼저 접하고 그 음악을 찾아 들어볼 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의무감이나 거리감은 모두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클래식을 감상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감동과 즐거움으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하 생략, 12월까지 365일 매일 한 페이지씩 구성)

<저자 소개>

클레멘시 버튼 힐(Clemency Burton-Hill)은 영국에서 예술 분야 방송인이자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BBC 라디오3 <Breakfast> 등 여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으며 「옵저버」,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등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 왔다. 「BBC Culture」에서는 클래식 음악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며 오로라 오케스트라(Aurora Orchestra)를 공동 창립했다.

제목 : CHOOSE WONDER OVER WORRY

가제 : 걱정에 관한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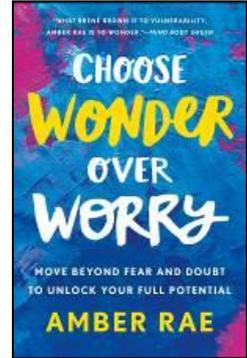
저자 : Amber Rae

출판사: Wednesday Books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라틴아메리카, 중국, 영국 출판 계약 체결

★ “자아에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삶에서 창의력과 경이로움, 즐거움, 보다 높은 의식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옮겨 가도록 하는 저자의 이야기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픈 모든 이들에게 통찰과 교훈을 선사할 것이다.” - 디팍 초프라

★ “강력하고, 실용적이고, 솔직한 책. 모두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만나고 자신의 소명을 혼자 힘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대담한 초대장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War of Art」의 저자 스티븐 프레스필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놀라워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조그마한 손으로 병뚜껑을 열었을 때, 쿠션 뒤에서 할머니 얼굴이 짠 나타났을 때, 공이 데굴데굴 굴러서 가까이 왔을 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소리친다. 세상에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는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호기심을 여기저기 드러내고 모든 것에 감탄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회화라 불리는 일종의 적응 과정을 거쳐 그 순수한 감정들은 모두 걱정과 불안으로 바뀐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괜한 말을 하는 건 아닐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데, 감히 내 의견을 말해도 될까?” 날이 갈수록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가혹해지고 자아는 점점 작아지다 못해 쪼그라든다. 그 결과는?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그 쪼그라든 자아 속에 함께 묻혀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수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일도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잠재력을 끌어내는 코치로 활동해온 저자는 세상을 살면서 습득한 걱정 대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다시 피어나게 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소리 높여 외친다.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걱정과 안전한 곳에만 머무르려는 안이한 판단이 개개인에게, 더 넓게는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재능 낭비를 일으키는지 설명하고, 대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걱정들이 모두 아무 근거도 없고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군더더기라는 사실을 저자가 직접 겪은 일들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저자가 다른 사람들의 아까운 재능을 끌어내는 일에 매진하게 된 것은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어릴 때 겪은 아픈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술과 마약,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삶에 빠져든 저자의 아버지는

좋아하는 음악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잃고 너무 이른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대신 조금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했다면 아버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내 이 의문을 떨치지 못한 저자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끈질기게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비생산적인 걱정의 본질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런 일을 할 만한 실력은 안되잖아? 그러다 욕먹으면 어쩌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걱정은 뒤로 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 정직하게 알려주는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불안에 가려지지 않은 진짜 우리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다. 나약함도 강인함도 왜곡되지 않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귀중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유익한 자기계발서다.

<목차>

머리말

1부. 두 가지 음성

- 걱정과 경이로움
- 걱정이 전부 파괴적인 건 아니다. 유용할 수도 있다.
- “충분치 않다”는 잘못된 생각
- 경이로움을 택하는 기술
- 자신을 좀 더 또렷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세 가지 C

2부. 걱정에 관한 오해

- “‘한 번 해볼까 싶다’고 생각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싫어요.” ‘해야만 한다’는 말의 의미
- “OO를 하고 싶은데, 절대로 못 할 것 같아요.” ‘두려움’이란
- “정말로 저를 믿어도 될까요?” ‘자기의심’이란
-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질질 끄는 습관’에 관하여
- “시간이 없어서요.” ‘스트레스가 망쳐버린 일들’에 관하여 (이하 생략)

3부. 결합

- 지혜란
- “내가 집이다” - 완전성에 관하여
- 여러분의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론 - 감사할 줄 아는 충만한 마음

<저자 소개>

앰버 래(Amber Rae)는 저술가이자 아티스트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망설임 없이 발휘하도록 용기를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해 왔다. 「포춘」 지로부터 “사람들이 창의력을 끄집어 내게끔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포브스」 지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열망을 따라가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